

성도의 교제 |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 가는 교회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알림

- 1. 설만한 물가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 2. 사순절: 2월 22일 - 4월 6일까지 사순절(Lent) 기간입니다.  
함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 3. 2023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읽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읽은 양을 향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읽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4. 후보 안면에 있는 말씀 노트와 설교 영문 노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화~금 오전 6시 YouTube (이사야)
- 6.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성경공부가 진행 됩니다. (Zoom & In person)
- 7.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문의: 김윤규 목사
- 8. 3월 19일에 2022년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 9. 손금미 집사님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 10. 에베소서 1:7 절 (2023년 3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11. 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rwgchurch@outlook.com / rwgchurch.ca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10 장 (통 34)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126. 사순절 (3)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우리 함께 기도해 / 나의 주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317 장 (통 353)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11:15-19 (p.74)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The Church Congregation where All the Nations Worship		
*찬 송 Hymn	620 장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 말씀 노트 ||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막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사건(막 11:15-16)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막 11:17).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반응입니다(막 11:18).

2.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11:15)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엮으시며 (막 11:16)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고 난 후에 바로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5 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사실은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이 되어지는 비둘기를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에 소와 양도 팔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요 2:14). 또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로 사용이 되어지는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과 환전을 금하고 계신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계셔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까?

5.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세 반 세겔(두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을 내기 위한 환전 수수료가 1/3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또한 환전 금액이 반 세겔이 넘을 경우 추가로 1/3 데나리온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둘기의 경우에도 성전 밖에서 비둘기 한 쌍을 구입을 하면 3.3 데나리온이었는데, 성전 안에서는 무려 7.5 배 비싼 25 데나리온이었습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러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세운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거하실 성소입니다(출 25:8).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회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출 33: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8.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에서도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왕상 8: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9.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11:17)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10. 예수님께서 본문 17 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예레미야 7 장 11 절의 말씀을 재해석 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 7: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 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1.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막 11:18)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12.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큼니다.

첫째,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닌 자신들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입니다.

둘째, 성도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죄로 우리들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13.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